

김 지사, 美 CES서 미래 기회 찾는다

도, 국제전자제품박람회 등 참가...도정 접목 벤치마킹 바이오산업 등 국내·외 기업-연구기관과 협력 방안 모색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전북특별자치도의 새로운 기회를 찾고 신성장동력 산업인 바이오산업과 미래모빌리티 등 글로벌 기업과의 협의를 위해 미국 출장길에 나선다.

도는 김관영 도지사 등 출장단이 오는 8일부터 14일까지 5박 7일 간 일정을 미국 소비자기술협회(CTA)가 매년 개최하는 'CES'에 처음으로 전북관을 진출시키고, 바이오·모빌리티 기업 및 연구기관과의 협력 등 글로벌 생명 경제도시를 위한 결실을 내겠다.

전북대표단은 9일(현지시간) CES가 개막되는 베네치안 엑스포(The Venetian Expo)로 이동, 드론축구 글로벌 런칭 기념식, 전북공동관에 참가하는 비나리 등 8개 기업을 포함한 20개 참여기업·기관들의 부스운영 상황을 직접 점검한다.

특히 이번 CES 2024 키워드는 '모빌리티'로 자율주행, 전기차, 미래 모빌리티, 소프트웨어로 전북도가 역량을 두고 있는 미래성장산업과 관련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라서 도는 이번 CES 첫 참가 및 참관을 통해 미래 기술 트렌드 파악은 물론, 글로벌 기업들과의 협력을 모색하는 계기를 마련해 보겠다는 목표다.

또한 참가한 국내·외 글로벌 기업과 개별 면담도 예정돼 있다.

텍사스로 이동한 미국 출장단은 11일 한인회와 호남향우회, 호남 출신 경제인 등 주요 재외동포들과 간담을 갖고 전북특별자치도의 출범과 새로운 도정방향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도 갖는다.

같은 날 바이오와 미래모빌리티 분야 기업인을 대상으로 전라북도 비즈니스 만찬을 개최, 전북의 투자환경·주요산업 등 현황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할 계획이며, 텍사스 주 상하원 의원 및 플레이노시장과 공식 면담도 예정되어 있다.

또한 도는 2024년 전북에서 개최하는 세계한인비즈니스 대회 홍보도 병행할 계획이다.

10일 라스베이거스에서 세계한인무역협회(육타, OKTA)와 업무협약을 맺고, 11일 텍사스에서는 텍사스 지역내 한인상공회의소와 자리를 함께하며 2024년 세계한인비즈니스 대회에 많은 참가를 요청한다.

12일에는 바이오 기술의 실리콘밸리 20년 역사를 가진 매사추세츠 공과대

학(MIT) 기계생물학 연구실(Mechano Biology Lab)을 방문, 세계적 석학인 Roger D Kamm 교수와 세계연구동향을 공유하며 전북도와 협력 체계 구성을 논의한다.

이와 함께 매사추세츠 공과대학 산업연계프로그램(MIT ILP, Industrial Liaison Program)의 주요 운영 상황에 대한 브리핑을 청취하고 혁신과 창업 지원에 대한 의견을 교환한다.

이어 바이오 클러스터 운영 주체로 바이오산업 생태계 조성에 선도적 기여를 하고 있는 랩센트럴에서는 바이오기업들에게 무료 입주 공간, 연구실, 실험장비 등을 지원하는 선진 경영사례에 대한 노하우는 물론 전북도가 추진하는 바이오헬스산업 육성과의

협력 방안을 모색한다.

전 세계적으로 유행한 급성호흡기감염병인 'COVID-19'를 통해 글로벌 제약 기업으로 급부상한 모더나를 방문해 패트리릭 벅스테드(Patrick Bergstedt) 총괄부사장과 미팅을 갖고, 미래 팬데믹에 대비한 백신과 신약개발 등 의약품 산업의 발전 방향에 대해서도 논의하기로 했다.

전북도는 이번 미국 출장에서 새롭게 출품하는 전북의 미래성장 동력의 기반을 마련하는 중요한 계기를 만들어 가기 위해 김 지사의 평소 소신대로 실무진 중심의 최소 인원으로 방문단을 꾸려, 벤치마킹 임무를 수행하고 돌아올 계획이다.

/김재훈 기자



김종훈 전북도 경제부지사 일행이 2024년 청룡의 해를 맞아 도내 중소기업 현장행정의 시작점으로 4일 제너럴바이오(주)를 방문해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김종훈 경제부지사, 제너럴바이오서 현장 행보

공장 시찰 후 직원 기숙사 지원 등 기업 애로사항 청취

김종훈 전북도 경제부지사는 2024년 청룡의 해를 맞아 도내 중소기업 현장행정의 시작점으로 4일 제너럴바이오(주)(대표 서정훈)를 방문했다.

김종훈 부지사는 공장 현장을 시찰하고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특히 직원들의 숙소인 기숙사 지원, 연구개발 전문인력 지원 등이 논의됐고, 전라북도 환경개선사업, 지역특화형 비자, 전북대학교 남원 글로벌캠퍼스의 '글로벌대학30' 사업 등을 전북도 차원에서 지원하는 방법을 찾아보기

로 했다.

간담회에서 김 부지사는 "2024년 갑진년(甲辰年)은 128년 만에 전라북도가 전북특별자치도로 바뀌면서 새로운 기회를 맞는 특별한 해다."며, "도는 기업이 경제활동을 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1기업 1공무원 전담제, 환경단속 사전 예고제, 세부조사 시기 선택제 등 친기업 환경조성 정책을 확대로 하고 강화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너럴바이오는 2014년도에 도

의 선도기업으로 선정돼 꾸준히 성장하여 2018년도에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선정됐다.

특히, 여름 피부노화방지 특허성분 '구실사리추출물'을 개발해 단독 특허 화장료로 등재되는 등 연구활동에서 성과를 내며, 2022년 12월 무역의 날 '1000만불 수출의 탑'을 수상하기도 했다.

집중호우로 인해 침수 피해를 입은 지역주민을 위한 생활용품 지원, 지역출하 원료 사용, 지역인 고용 등 지역 사회 발전에도 기여해 왔다.

/김재훈 기자

새해 맞이 안전문화 확산 캠페인

도, 시·군, 안전관련단체와 겨울철 화재예방 수칙 홍보

전북도는 갑진년 새해를 맞아 안전의식 개선과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4일 익산시 및 안전관련 단체와 합동으로 서동시장과 중앙시장 등에서 안전문화활동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겨울철 화재예방 5개 안전수칙, △화재발생시 5개 국민행동요령, △겨울철 사고예방 7개 일반행동요령과 지역중심 '안전한바퀴 안전활동' 및 '안전하세요 안전활동'을 병행해 집중적으로 홍보했다.

이와 함께 도에서는 14개 시·군

과 합동으로 3월까지 겨울철 화재 예방을 위한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을 진행한다.

현재 전북도는 '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을 맞아 도민의 안전의식 고취를 위해서 도, 시군 합동 캠페인을 연간 계절별, 시기별 테마를 설정해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윤동욱 도민안전실장은 "올해 갑진년은 새로운 전북, 특별한 기회를 맞이하는 전북특별자치도가 출범하는 해로써, 도민의 안전이 제일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재훈 기자

도, 올해 중기 육성자금 총 2600억원 규모 지원

8일부터 온라인 접수만 받아

전북도는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의 해를 맞아 대폭 증가된 규모의 전라북도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오는 8일부터 신청받는다.

올해 총 지원규모는 전년 대비 400억 증액된 2,600억원으로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 750억원, 벤처기업 육성자금 200억원, 경영안정자금 1,150억원과 신설된 지역신산업 육성·지원자금 500억원이다.

기 융자한 자금 3,780억원에 올해 지원하는 2,600억원을 더하면 도에서는 총 6,380억원의 자금규모를 운영하는 것이다.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원년의 해를 맞아 새로 신설된 지역신산업 육성·지원자금은 전북도의 산업정책에 부합하는 기업들을 지원하고자 레드바이오, 이차전지, 미래모빌리티, 방산, 지식산업 및 영산산업을 대상으로 최대 10억 한도 내에서 지원된다.

또한 재해기업 및 재해기업의 협력기업이 자금을 필요로 할 때 3억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경영안정자금 중 25억원을 재해기업 특별 경영안정자금으로 지원한다.

올해 지속적으로 시중은행 중소기업 대출금리가 인상되고, 증가하는 자금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정책자금 규모를 증액하는 과정에서 작년 대비 신규 융자기업은 1%, 기존융자기업은 0.5% 금리가 인상됐다.

2024년 신규 융자 기업의 부담금리는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이 2.82%, 벤

처기업 육성자금이 1.82%, 기존 기업의 부담금리는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이 2.32%, 벤처기업 육성자금은 1.32%가 적용된다.

자금은 각 분기별로 지원하며, 각 자금별 1분기 신청일자는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은 1월 8일부터 12일까지, '경영안정자금'은 15일부터 19일까지, '벤처기업 육성자금'은 22일부터 26일까지, '지역신산업육성·지원자금'은 2월 14일부터 20일까지이다.

각 기간동안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전라북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통합관리시스템(<https://fund.tba.kr>)'을 통한 온라인 신청만 가능하며, 현장신청은 받지 않는다.

자금별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등 자세한 내용은 전북도 또는 경진원 및 전라북도중소기업육성자금통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에서 '2024년 전라북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지원 계획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전라북도 기업애로해소지원단(063-280-3228) 또는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자금지원팀(063-711-2021~2)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김희옥 전북도 기업애로해소지원단장은 "올해는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원년의 해로 도내 친기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원년이다"며, "중소기업 육성 자금 지원사업이 그 시작점으로서, 도내 중소기업들에게 조금이나마 금융 부담을 덜어 줌으로써 도움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jmaeil.com